

광양항 3단계 1차 컨투너 준공

물동량 확보 없인 '속빈 강정'

年처리능력 550만TEU로 늘었는데 올 7월까지 98만 TEU 처리에 그쳐

■2007년 광양-부산항 물동량 (단위: 천TEU)

월별	1	2	3	4	5	6	7	계
광양	142	140	149	147	135	139	147	985
부산	1,040	1,003	1,064	1,154	1,155	1,151	1,167	7,736

6일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됨으로써 광양항은 부산항과 더불어 양항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러나 광양항은 주변의 열악한 산업생산 능력 및 항만 여건변화로 오히려 물동량이 줄어 '동북아 경제 중심항' 건설에 큰 압박을 받게 됐다. 당초 광양항의 목표 달성 과 양항체제 구축을 위한 항만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입은 39만 6천TEU, 수출은 40만 5천TEU, 환적량은 18만 2천 TEU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35만 6천TEU, 수출 39만TEU, 환적 25만 6천TEU를 기록한 것에 비해 양산항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환적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올 7월까지 부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697만TEU보다 11% 늘어난 773만 TEU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항만공사로 전환되면 정부가 출연한 연간 1천억원대의 항만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항만활성화를 위해 선사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일 수밖에 없어 소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양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 1조 2천억원의 공사 전환 이전 처리문제도 큰 걱정거리다.

후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주업체가 화물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보다는 물류업 중심이어서 광양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6일 열린 광양항 활성화 세미나에서 이사회 광양시의회 의원은 산업용 전기공급 시설마저 부산항에 비해 크게 부족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 배후부지는 122만㎡밖에 안되지만 15만 4천V의 변전소를 설치한 데 반해, 광양항 배후부지는 부산신항의 3배인 396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2만 2천V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치만 커질까 걱정=6일 3단계 1차 부두 준공으로 광양항은 모두 16선석(5만급 12선석, 2만급 4선석)을 갖추게 됐다. 지난 1985년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의 투포트 시스템을 천명한 후 1987년 개발의 첫 삽을 뜬 지 21년 만에 3-1 단계공사가 마무리돼 연간 550만TEU 처리능력을 갖췄다. 광양항은 오는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모두 34선석 규모로 확장될 예정이다.

◇활성화 대책 시급=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광양항을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동측 배

우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주업체가 화물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보다는 물류업 중심이어서 광양항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 준공식이 한덕수 국무총리,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광양항 현지에 열렸다.

장운 스님, 7월에 변실장 만나 신씨 문제 논의

변호인 밝혀...검찰 수사 협조 방안 검토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학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장운 스님이 지난 7월 변양근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신씨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운 스님과 변 실장이(지난 7월8일 만나) 부동산 매각의혹, 교직원 채용 등 동국대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장운스님의 향후 검찰 참고인조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인 내가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의) 주일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만나 검찰이 장운스님으로부터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지 파악한 후 장운스님과 구체적 방안을 상의할 계획"이

라고 말했으나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에 응할 것인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동국대 이사진 등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장운 스님의 발표문을 배포했다. 발표문에서 장운스님은 "가짜학위 의혹은 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국대 재단이사들이나 학교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실책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동국대 이사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孫·鄭 '여론조사' 칼날 대치

"민심 반영 늘려야" "당심이 우선"

첫 통과가 무섭게 대통합민주신당 주자들이 본경선 여론조사 도입을 놓고 칼날대치 양상에 들어갔다. 예비경선에서 불과 0.29% 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를 편 손학규 정동영 후보가 주로 대적점에 섰다. 양쪽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란 위기감을 흘리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그만큼 여론조사 도입이 본경선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상황인식이 양 캠프 내에 팽배하다.

"제한경선과 여론조사, 당원경선과 여론조사는 (조합이) 맞지만 국민경선과 여론조사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자고 한다면 '인센인'(insane, 정신이 아닌)한 주장"이라며 "이것은 유희리가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는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심"에 가까운 선거인단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관측이 예비경선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손 후보측은 7일 "이제 당 대표 뽑는 선거"라며 민심 반영장치로서 여론조사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 후보측은 "오픈프라이머리하지 말자는 소리"라며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본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국민경선을 하면서 여론조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양측이 이처럼 여론조사를 놓고 '강대강'식의 충돌 양상을 빚으면서 지난 3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빅2'간에 벌어졌던 경선 논쟁이 신당 경선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노주자 3인은 각자의 이해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반대', 유시민 후보는 '유보', 한명숙 후보는 '조건부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론조사 유희리를 떠나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孫·鄭 '靑 고소' 온도차

孫, 청와대와 정면대결 鄭, 한나라 싸잡아 비난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정동영 두 후보가 청와대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고소 방침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와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비노주자이지만 손 후보는 청와대를 향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정 후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손패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손 후보로서는 본경선에서 비노주자로서의 대표성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인 반면, 정 후보는 '비노반한(비 노무현, 반 한나라당)'의 착점을 노린 전략적 위치설정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정치풍격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뒤 "고소 방침을 철회하라는 이야기냐"는 물음에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도무지 청와대가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6일 "이명박을 당선시키려 작정을 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후보는 또 "대통령은 앞으로 범여권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라. 무슨 범여권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범여권이 경선하는 날 교란시키느냐. 청

이에 반해 정 후보 측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는 그간 끊임없이 정치공작설을 제기해왔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시대와 국가, 국민이 변했음을 알지 못하고 19세기나 20세기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정치공작설을 유포하는 한 이 같은 일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이 후보는 이제라도 사과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은 앞으로 범여권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라. 무슨 범여권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범여권이 경선하는 날 교란시키느냐. 청

핀힐스CC

핀힐스CC는 18홀, 7200평 규모의 최첨단 골프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상의 골프 코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회원 여러분께 최고의 골프 경험을 선사합니다.

회원 모집

핀힐스CC는 회원 여러분께 최고의 골프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상의 골프 코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회원 여러분께 최고의 골프 경험을 선사합니다.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성동 1-1

문의

TEL: 041-750-9000
FAX: 041-750-9100

회원가입문의 041-750-9013

파인힐스CC 주중회원 모집

핀힐스CC는 18홀, 7200평 규모의 최첨단 골프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상의 골프 코스,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로 회원 여러분께 최고의 골프 경험을 선사합니다.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성동 1-1

문의

TEL: 041-750-9000
FAX: 041-750-9100

회원가입문의 041-750-9013